

[1]

개성적인 발상과 표현

소단원 학습 목표

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
형상화한다.

● 다음 작품이 새롭게 느껴진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말해 보자.

메아리

최승호

망치처럼 나무를 두드리던

딱따구리야 어딴니이

따구리야 어딴니이

구리야 어딴니이

리야 어딴니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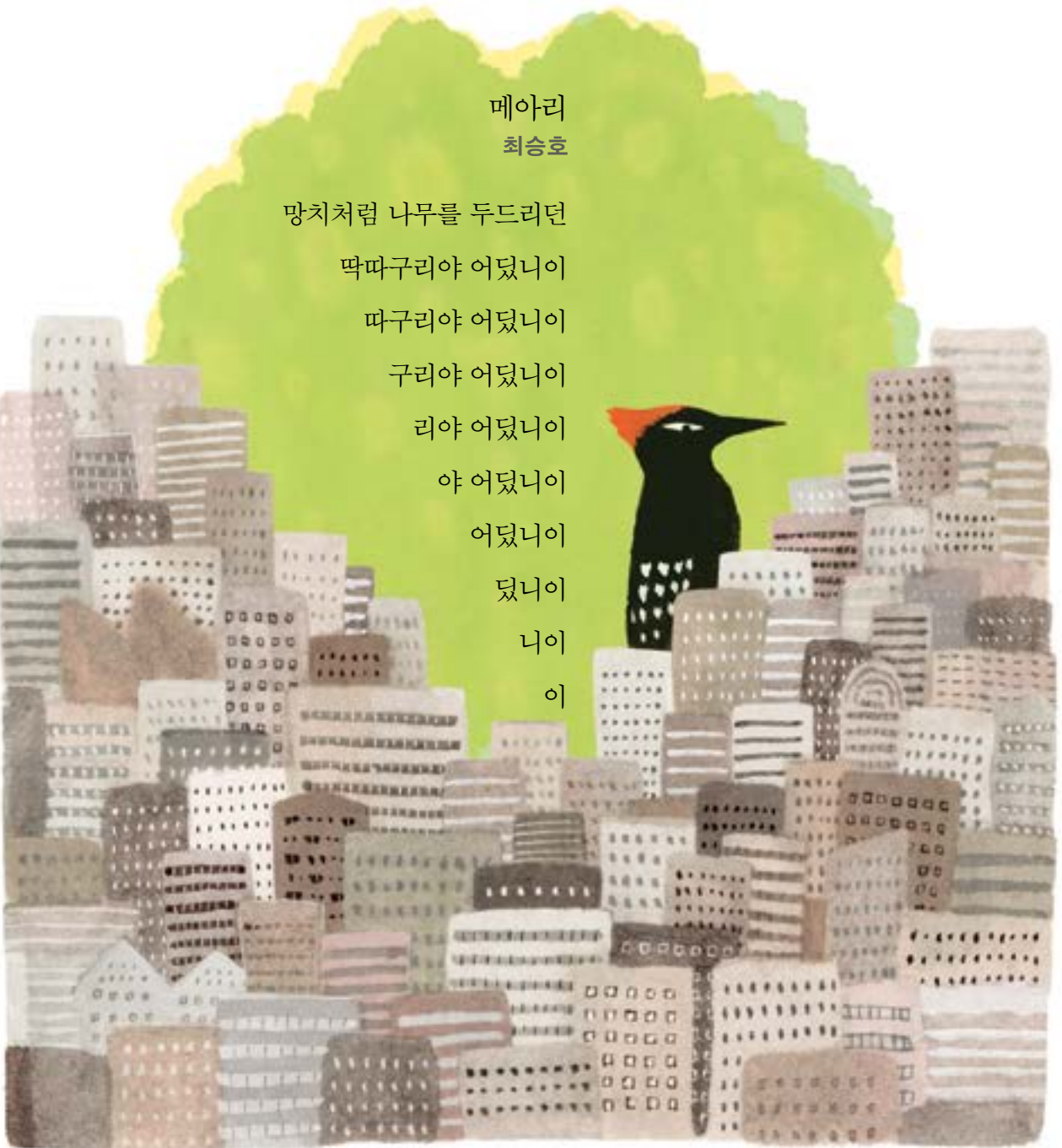
야 어딴니이


어딴니이

딴니이

니이

이





다음은 친구와 우정을 나눈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 시이다. 운율과 역설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.

절친

북효근

내 건 검은색에 흰 줄
진영이 건 하늘색에 흰 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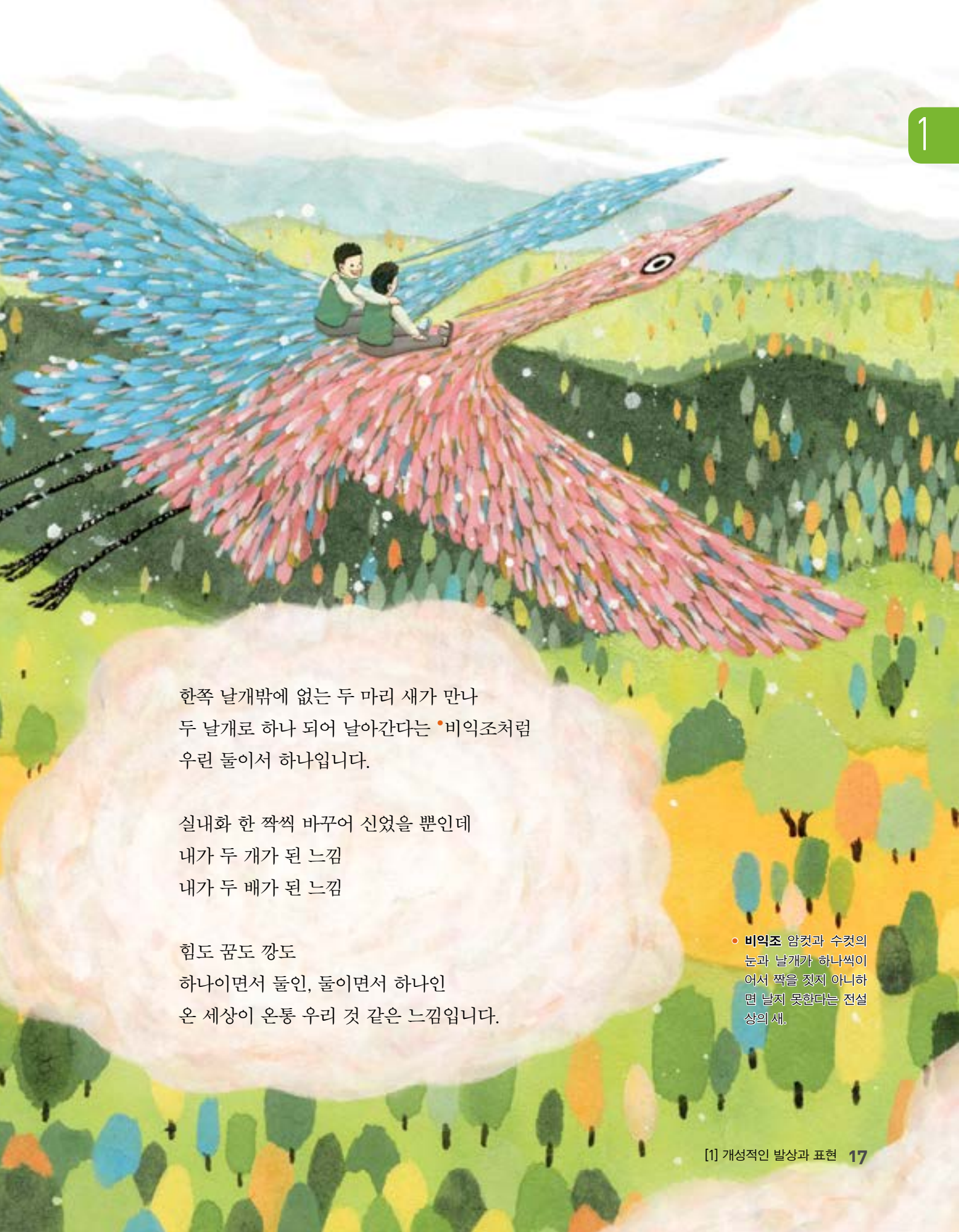
진영이와 나는 슬리퍼 한 짝씩 바꿔 신었습니다.
나는 내 것 왼쪽에 진영이 것 오른쪽
진영이는 내 것 오른쪽에 진영이 것 왼쪽

서로의 절반씩을 쥐 버리고 나니
우린 그렇게 절반씩 부족합니다.

서로의 부족한 절반을 알고 있기에
그 서로의 반쪽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.

글쓴이

북효근(1962~) 시인. 시집으로 『마늘 찢불』, 『따뜻한 외면』 등이, 청소년 시집으로 『운동장 편지』가 있다.



한쪽 날개밖에 없는 두 마리 새가 만나
두 날개로 하나 되어 날아간다는 비익조처럼
우린 둘이서 하나입니다.

실내화 한 짝씩 바꾸어 신었을 뿐인데
내가 두 개가 된 느낌
내가 두 배가 된 느낌

힘도 꿈도 강도
하나이면서 둘인, 둘이면서 하나인
온 세상이 온통 우리 것 같은 느낌입니다.

• 비익조 암컷과 수컷의
눈과 날개가 하나씩이
어서 짝을 짓지 아니하
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
상의 새.



1

「절친」의 내용을 떠올리며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.

- (1) '나'와 진영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써 보자. 그리고 그 일로 '나'와 진영이가 어떤 사이가 되었는지 말해 보자.
- (2) '나'가 “온 세상이 온통 우리 것 같은 느낌입니다.”라고 한 까닭이 무엇일지 말해 보자.
- (3) (1)~(2)번 활동을 바탕으로 이 시의 제목 ‘절친’이 어떤 친구를 의미하는지 말해 보자.



2

이 시에 나타난 운율을 파악해 보자.

- (1) 다음은 이 시의 1연과 3연이다. 사이를 두고 끊어 읽으면 좋을 곳에 ✓ 표시를 해 보자.

1연

내 건 ✓ 검은색에 ✓ 흰 줄
진영이 건 하늘색에 흰 줄

3연

서로의 절반씩을 쥐 버리고 나니
우린 그렇게 절반씩 부족합니다.

- (2) 다음 [예]처럼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이 느껴지게 한 부분을 찾아보자.

예

내 건 검은색에 흰 줄
진영이 건 하늘색에 흰 줄

(3) 3, 4, 5, 7연의 마지막 행에 반복적으로 쓰여 운율을 형성하는 표현을 찾아보자.

(4) (1)~(3)번 활동을 바탕으로 운율을 살려 이 시를 낭송해 보자.



목표

3 이 시에 쓰인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.

(1) 다음 [예]를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 쓰인 시구를 찾아보자.

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.

(2) (1)번 활동에서 찾은 시구의 의미와 그 시구에 쓰인 표현 방법이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.

알아 두기

운율

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뜻한다. 끊어 읽기의 단위를 활용하는 방법,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방법, 글자 수를 일정하게 배열하는 방법, 특정한 위치에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방법 등으로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. 운율은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전달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.

역설

겉보기에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실이나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 방법이다. 역설은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어 듣는 이나 읽는 이의 주의를 끌고,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강조한다.